

연중 제 23주일

2024. 9. 8 (나해) 제2330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복음



“저 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머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르 7,37ㄴ

비레타 biretta

17,0×18,0×18,0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 1 독 서 이사 35,4-7ㄴ

제 2 독 서 야고 2,1-5

화 답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 혼 아 주 님 을 찬 양 하 여 라

복음환호송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 음 마르 7,31-37

영성제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쉐마! 들어라.

오감(五感)이라고 불리는 시(視)·청(聽)·후(嗅)·미(味)·촉(觸) 중 귀와 관련이 있는 청각은 나머지 네 개의 감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등 형태를 갖춘 것과는 달리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도처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들음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으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치유하신 순서에 대해 먼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셨다가 혀에 손을 대셨다고 전합니다. 바로 청각의 기능을 가진 귀를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리게 되어 말을 제대로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귀가 먹었는지, 말을 더듬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하니 말을 할 수 없었으며, 제대로 듣지 못하니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미사는 말씀 전례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 주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의무감에 미사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독서와 복음, 그리고 사제의 강론에 귀기울여 보시기를 감히 청해봅니다. 분명 하느

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터이니가요. 그래야 우리의 미사에서 생동감을 느끼고, 파견의 기쁨을 안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귀먹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며, 이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가지고 제대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먼저 잘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변의 목소리를, 나아가 세상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자연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겠습니다. 산들바람처럼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제대로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도 “에파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나에게도 마치 주문처럼 자주 외쳐 보면 좋겠습니다.

“에파타!(마르7,33)”.

김선웅 시문 신부
풍암운리 본당



전교란 무엇인가



2019년 10월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하셨다. 이는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것인데, 교황은 이 교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광주대교구 사목평의회는 이 기간을 좀 더 뜻깊게 보내고, 교구에 선교의 사명을 고취하고자 ‘특별 전교의 달’을 한 달이 아닌 3년 동안 ‘특별 전교의 해’로 지내자고 건의하였고, 당시 교구장이셨던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렇게 해서 선포된 광주대교구의 ‘3개년 특별 전교의 해’는 광주대교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3년을 어떻게 특별히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교구 사제단은 교구청 사제들과 사제평의회 위원 사제들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전교의 의미와 방법을 고민하는 연수회를 가졌고, 특별 전교의 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7명의 기획위원 사제들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사제들은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전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공동체가 먼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찰하였다. 아울러 교회공



동체는 사제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평신도·수도자·성직자가 함께 이루어 가는 공동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얼마 후 기획위원회는 수도자 3명과 평신도 2명을 보강하여, 명실상부하게 하느님 백성이 함께하는 기획위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자신 있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복음 말씀은 진정한 의미의 전교라고 할 수 없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완벽한 일치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화와 경청, 존중과 신뢰의 모습이 그 전제조건이요,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모이는 대화의 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교구청 사목국장



울화가 치밀면... 그냥 내 손에

대학 다닐 때 4년 내내 탈춤반에서 활동했다. 학보사 기사를 겸했으니 서클 활동하느라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던 듯하다. 본업을 소홀히 한 탓에 후회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 경험을 했으니 젊은 시절이 풍요롭게 기억되긴 한다.

80년대 대학 탈춤반은, 당시 모든 학생 활동이 정치적이었음을 고려해도 학생운동의 본거지격이었다. 다만 필자는 신학교를 다녔고, 탈춤반에서도 봉산탈춤의 기본기를 약간 익힌 후 요나서를 마당극으로 만드는 등에 힘을 썼기에 일반 대학 운동권의 색깔은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춤과 마당극의 체험은 당대 민중들이 어떻게 삶의 의지를 간직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탈춤의 기저는 해학이다. 풍자와 해학은 간혹 헛갈리는데, 해학이 호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익살과 웃음으로 삶의 고난을 형상화한다면 풍자는 상대의 결점과 악행을 우스꽝스럽게, 비판적으로 꼬집어 조롱한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풍자와 해학은 다양한 형태로 창조되고 향유됐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해학은 삶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는 방어적 기제인 것도 같고, 풍자는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우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우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명 중 1명은 '답답하고 분한' 정신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젊은이들, 특히 30대가 높은 수준의 우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국민 절반이 "답답하고 분하지만 꼭 참고 있다"는 것이다.

십분 이해가 간다. 필자 역시 꽤 장기적 우울 상태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TV를 켜면 예능이나

보고 잘해야 드라마다. 요리나 여행 안내 프로그램도 무난하다. 즐겨 보던 뉴스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스쳐만 봐도 짜증스럽다. 차라리 홈쇼핑이 즐겁다. 저 답답하고 짜증나는 KOO 방송과 관련해서는, 집에서 TV를 치우고 시청료도 내지 말까를 고민한다.

자주 화면을 떼로 채우는 정치인들의 신경질적인 말투들, 어떤 사고와 사건이 발생해도 말단 공무원만 희생되는 무책임한 정치와 행정, 뇌물인지 청탁인지 선물인지 핏대 올리는 말싸움들, 어느 하나 믿을 수 없는 신문과 방송들, 말하는 이마다 달라지는 '국민의 뜻', 바다에 퍼부어지는 방사능 오염수(또는 처리수?), 불안한 경제 상황...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티메프 사태 등 대형 사건들을 위시해 이미 우리는 답답하고 분한 일상을 수없이 겪고 있다. 장기적 우울이 안 생길 수 없다.

당시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조선시대 민중들은 신분제와 억압과 착취의 사회 구조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으리라. 그 절망과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해학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망과도 같은 종류일지도 모른다. 가장 절망적인 삶인 죽음 속에서도 슬픔과 비관을 여유와 낙관의 웃음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희망을 아주 잃지는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나아가 개혁과 쇄신을 위한 또 다른 웃음의 기제로서 풍자, 그리고 직설적인 주의 주장까지도 지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울화만 치밀면 잘해봐야 내 손해다.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 편집국장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목자 없는 시절을 보내던 조선 교회가 제대로 된 기반 아래 성장하도록 주춧돌을 놓았던, 푸른 눈의 선교사를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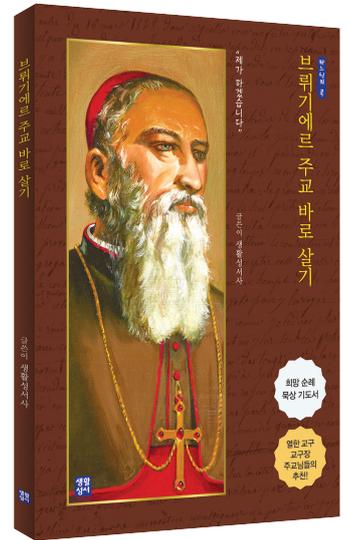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초대 조선 대목구장(교구장)이신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일생을 묵상하고 그 믿음과 정신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묵상 기도서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입니다.

프랑스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외방 전교의 꿈을 키운 브뤼기에르 주교님은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했고,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자청해서 조선 선교지를 향해 주저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애석하게도 조선 땅을 목전에 두고 선종하고 말지만, 주교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 업적과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교님이 걸었던 선교 여행길을 따라 모방 신부님, 앙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등 초기 조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선발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세 신학생에게서 우리나라의 사제성소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난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모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기억하고 현양하기 위해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시복 시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는 총 26주(6개월) 동안 일주일 단위로 묵상하고 기도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교님의 삶 속 한 대목을 살펴본 뒤 '소 주교가 남긴 글'로 당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그려 보

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삶의 체온을 느껴 봅니다. 그다음에는 '말씀 읽기'로 해당 주치의 주제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읽고 더욱 풍요로운 묵상으로 나아가며, '주간 묵상'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 주간의 기도를 마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가오는 희망 순례 희년을 기도로서 준비하자고 권고하셨습니다. 늘 바치는 화살기도, 염경기도도 좋지만 더욱 능동적이고 깊은 차원의 기도를 원하는 분들께 묵상 기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책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저 매주 한 번씩 책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차근차근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를 나의 삶과 몸으로 읽으며 기도해 보면 나의 하루와 한 주를, 그렇게 쌓은 6개월 전체를 기도로 만들어 주님께 봉헌하는 벅찬 체험을 하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박효주 효주아녜스 수녀
생활성서사 단행본 편집부



교구장 동정

- 9월 8일 사목 방문(광천동)
- 9월 10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사회
주교와 수도자협의회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 9월 13일 노숙인 추석 나눔잔치



관리국

목포지구 추석 합동위령미사

일시 : 9.17(화) 11:00
 장소 : 무안 천주교청계묘지 봉안당
 (해안로 752)
 문의 : 061) 276-0735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성소국

예비신학생 9월 모임

일시 : 9.22(주일) 13:30
 대상 : 중1-고1
 장소 : 교구청(쌍촌동)
 문의 : 062) 380-2280~1

2026학년도 신학교 입학예정 예비신학생 모집

대상 : 고2, 고3, 청년
 신청 : 주임신부 추천서 9.20(금)까지 제출
 첫모임 일시 : 9.29(주일) 10:00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 062) 380-2280~1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om FM 99.9MHz FM 99.5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재방송) 16:50-17:00]

9.9(월)-11(수) 한병학 신부(목포가톨릭대학교) / 9.12(목)-14(토) 윤창신 신부(압해도 본당)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금요일 코너 - '세상을 걷는 예수' [9.13(금) 14:05-14:25]



사회사목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가 출연하여 신자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사회교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와 어플 'cpbc빵'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14:00, 종교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17:00, 시사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말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05(100원 유료), 빵톡(무료)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방송 청취 소감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은 보도제작국 062) 231-7723, 7741번으로, 교구 단체나 본당 소식 등에 관한 내용은 보도제작국 062) 231-77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바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튀르키예, 그리스(11월) 2025년 1.13(월)-23(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심리상담실



대상 : 심적 혹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신자
 방법 : 전화 예약 후 상담 진행
 장소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1층 103호
 비용 : 유료
 문의 : 062) 510-2890~1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사랑의 집' 집수리 후원 안내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웃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해주시길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 사랑의 집수리 : 주택 구조의 안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 개보수
- 마음 나눔 (입금자명 뒤 1004를 넣어주세요)
 광주은행 601-107-002812
-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문의 : 061) 802-2047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후원 계좌 안내>
 농협 605-01-353182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062) 510-2881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ㅊ 380-2213 | 책더하기사랑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2학기 정규강좌 안내 <국약>

- 가야금** 강사 : 구경화
 · 9.2-11.25 / 매주 월 13:30-15:30 / 15주 과정 / 수강료 15만 원 / 악기 개별 준비
- 대금** 강사 : 채광자
 · 9.2-12.9 / 매주 월 19:00-21:00 / 15주 과정 / 20만 원 / 악기 개별 준비(산조대금)
- 민요** 강사 : 송추월
 · 9.5-11.28 / 매주 목 14:00-16:00 / 12주 과정 / 15만 원
- 판소리교법** 강사 : 이준수
 · 9.6-11.22 / 매주 금 19:00-21:00 / 12주 과정 / 15만 원
- 해금** 강사 : 김유라
 · 9.5-11.28 / 주간) 매주 목 17:00-19:00 / 12주 과정 / 15만 원
 · 9.5-11.28 / 야간) 매주 목 19:00-21:00 / 12주 과정 / 15만 원
- ※ 수강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www.gclei.kr
- ※ 수강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카드결제(상생카드 사용가능),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입금계좌 : 광주)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기관·단체

포콜라레 월레모임(Zoom)에 초대합니다

일시 : 9.8(주일) 15:00(누구나)
Zoom ID : 876 0662 7700
암호 : 123456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 간호·자율전공(사회복지, 상담심리)
원서접수 : 9.9(월)~13(금)
문의 : 043) 270-0100, 0119

2025학년도 살레시오여중 입학설명회

일시 : 9.11(수) 19:00
장소 : 본교 대강당
문의 : 062) 220-1504

성령 은혜의 날(추계)

일시 : 9.28(토) 09:00-17:00
강사 : 조남구 마르코 신부(수원교구)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회비 : 5천 원(김밥 제공),
접수순 400명(당일 접수불가)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62) 382-600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9.21(토)-22(주일), 10.19(토)-20(주일)
3박 4일 : 9.26(목)-29(주일), 10.24(목)-27(주일)
8박 9일 : 10.7(월)-15(화), 11.14(목)-22(금)
40일 : 10.4(금)-11.12(화)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 953-6932

회복의 삶 2

“성경 인물들의 회복 여정”(Zoom 강의)
기간 : 10.1-12.17(매주 화), 12주
강의 : 14:00, 22:00(자유롭게 참여)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회비 : 7만 원(교재비 포함)
문자 접수 : 010-8911-5957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자연순례
기간 : 10.2(수)-4(금), 10.25(금)-27(주일),
11.1(금)-3(주일), 11.15(금)-17(주일)
대상 :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장소 : 성이시들 피정의집(한통사)
문의 : 010-9670-9775, 010-2231-2074

제115차 '라 크르와' 도보 성지순례

일자 : 10.12(토) 운전역 3번 출구
장소 : 용소막, 배론, 묘재성지(원주교구)
문의 : 성모승천수도회 010-2378-9104

씨든 마음터 심리상담

내용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영성, 우울, 불안, 대인관계, 가족, 커플상담
문의 : 010-6799-3732(유 무료 / 화정동)

제27회 슈발리에 마음 축제

기간 : 10.18(금)-20(주일)
접수 : 9.9(월)부터 접수순(회비 : 10만 원)
장소 :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부산 본원
대상 : 40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 010-2817-3101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아키타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제주운전기사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64) 758-6476, 010-4566-6476

광주가톨릭대학교 주방 직원 채용공고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마감 : 9.20(금)까지
제출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남길 12-25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무처
문의 : 061) 339-2230

선교·수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구일기도(노베나)

일시 : 9.10(화) 13:30 목곡 가톨릭회관 2층
9.11(수) 13:30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이종훈 마카리오 010-2809-4628

예수고난회 피정

1) 하루 피정 : 9.11(수), 10.15(화)
2) 국악성가 피정 : 11.8(금)-10(주일)
3) 독서 피정 : 11.22(금)-24(주일)
4) 자기인생 돌아보기와 치유 :
12.6(금)-8(주일)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8004

예수고난회 개방의 날

일시 : 9.13(금) 10:00-15:2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예수고난회 기도학교

일시 : 9.23(월) - 12.17(화)
주간반 매주(월) 14:00 - 16:00
야간반 매주(화) 19:00 - 21: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수강료 : 15만 원(13주 과정)

강사 : 김영익 루도비코 C.P.

문의 : 062) 571-5004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 상시, 전화 상담 후 결정
장소 : 미리내 수도회 본원
문의 : 성소부) 이 안젤로 신부 010-5195-3217
총장) 이 스테파노 신부 010-9744-2974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 매월 세 번째 토-주일
장소 : 광주 신안동 수도원
문의 : 062) 512-0332

예수의소화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개인적인 만남 언제든지 가능
장소 : 광주 광산구 노안삼도로 1371-36
문의 : 010-6670-9633, 062) 673-9633

본 당

월곡동 성당 유급 반주자 모집

자격 : 오르간 연주 가능자
문의 : 062) 956-2004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일반대학



목포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3유형) 선정
- 취업률 광주·전남·전북지역 사립대학 1위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전라남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 선정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지원)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선정

수시 모집 인원 : 간호학과 100명
사회복지학과 13명
유아교육과 12명
수시 접수 기간 : 9.9(월)-13(금)
인터넷 원서접수 : 유웨이
입학상담 : 061) 280-5108, 5150

가톨릭목포성지 미사시간 안내

<< 평일

- 월요일 : 06:30
- 화-금요일 : 11:00 / 16:00
- 토요일(후원회미사) : 11:00

<< 주일

- 토요일(주일미사) : 17:00
- 주일(교중미사) : 11:00

Ch 천주교 광주대교구 카카오톡 채널

교구 소식, 주보 빛고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실행
2. 천주교 광주대교구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입력
3. 천주교 광주대교구 클릭 후 채널 추가